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문자가 인민들의 문화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어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

김영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 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입니다. 피줄이 같고 한 령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전집》 제32권 350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어가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해방후 문자가 인민들의 문화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어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문자가 인민들의 문화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어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먼저 인민대중이 말과 글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모든 학교들에서 우리 말과 글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것과 함께 인민대중이 우리 말과 글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문맹퇴치운동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해방후 문맹퇴치사업은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지고 봉건사회의 낡은 잔재를 청산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였다.

일제의 식민지민족우매화정책의 후과로 많은 조선사람들이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였으며 자기의 이름자도 모르는 문맹자로 되었다. 해방직후 북반부에만 하여도 230여만명의 성인문맹자가 있었다.

일제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악독한 후과를 가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정치문화수준을 높일수 없었으며 나아가서 건국사업에서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킬수 없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문맹퇴치사업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체35(1946)년 11월 문맹퇴치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문맹퇴치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광범히 전개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문화향상은 문맹퇴치로부터!》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문맹퇴치사업을 당과 국가의 지도밑에 전사회적,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그 단계별과업과 방도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도시와 농어촌, 공장, 기업소 이르는 곳마다에 문맹퇴치를 위한 성인학교를 내오고 중앙과 도, 시, 군, 면에는 문맹퇴치지도위원회를, 리에는 문맹퇴치반을 조직하게 하시였으며 집중적으로 문맹을 퇴치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조선사람들속에 농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환경에 맞게 이 사업을 농한기인 겨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내밀도록 하

시였으며 필요한 교과서와 학용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11월 《민주조선》신문 책임주필에게 석달만에 문맹을 퇴치하고 수령님께 삼가 편지를 올렸으며 전국의 인민들에게 문맹퇴치운동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한 리계산녀성에 대한 선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리며 그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리계산운동》을 힘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주체35(1946)년 12월부터 주체36(1947)년 3월까지를 문맹퇴치돌격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체 인민이 문맹퇴치사업에 한사람같이 결기하도록 하였다.

주체36(1947)년 11월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이미 문맹자의 50%를 짧은 기간에 퇴치한 실정에 비추어 나머지의 문맹자들을 빠른 시일안에 완전히 없앨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문맹퇴치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문맹퇴치운동에 전체 인민을 총동원하시였다. 그리하여 문맹퇴치운동을 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기관이 틀어쥐고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각 정당, 사회단체와 문화단체의 수많은 일군들과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각급 학교 교원, 학생들까지 문맹퇴치운동에 총동원하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이 운동을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말과 글로 교육하는 정연한 체계가 세워지고 주체38(1949)년 3월에 이르러 공화국북반부에서 문맹을 완전히 퇴치하는 력사적승리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문맹퇴치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전체 인민이 문자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대중이 우리 말과 글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서사생활에서 한자를 쓰지 않도록 하시였다.

서사생활에서 어려운 한자말을 계속 쓰게 된다면 광범한 인민대중이 언어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없으며 언어발전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렵고 까다로운 한자말을 정리하여야 우리 말을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들이 말과 글을 잘 리해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력사적으로 전승되어온 고유한 우리 말을 살려쓰는 방향에서 한자말을 정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1월 어느 한 신문사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신문에 어려운 한자와 한문투의 말이 많은것 같다고, 신문을 발행하는 목적이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자는데 있는것만큼 기사를 누구나 다 읽고 리해할수 있게 우리 글로 알기 쉽게 써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글 활자를 많이 만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주체36(1947)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력사문학부(당시) 교원들과 하신 담화에서는 일상언어생활에서 한자를 적게 쓰도록 하여야 한다고, 우리 인민의 절대다수가 아직 문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조건에서 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들에 한자를 많이 쓰면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출판물에 될수록 한자를 쓰지 말고 우리 글을 쓰는것이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7(1948)년 1월 조선어문연구회 위원장과 하신 담화에서도 한자는 배우기도 힘들고 쓰기도 불편하므로 한자를 쓰지 말고 우리 말과 글을 살려쓰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말과 글을 잘 리해할수 있도록 한자말도 정리하며 출

관물들과 문서들에서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게 글을 가로쓰도록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문자생활의 역사적조건을 고려하여 모든 출판물에서 한자를 적게 쓰며 그것을 점차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해방직후 초등학교교과서들과 성인학교교재, 노동자,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들과 일부 국문작품들부터 먼저 완전한 우리 말로 출판하는 사업이 벌어졌으며 뒤따라 각 정당, 사회단체, 국가기관들의 공식문건들과 정기간행물에서도 한자사용을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자폐지를 문맹을 퇴치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단계별로 진행하다가 주체38(1949)년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의 전반적출판물들에서 한자사용의 전면폐지를 단행하도록 혁명적조치를 취해주시었다.

한자사용의 폐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글을 쓰고 읽을수 있게 함으로써 민족 문자가 전인민적인 소유물로 되게 하며 민족어의 주체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문자가 인민들의 문화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어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어학발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학의 연구목적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어학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당시 일부 학자들은 《조선문자개혁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오면서 우리 문자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자개혁문제를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민족의 장래와 나라의 과학문화발전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역사문학부(당시) 교원들과 하신 담화에서 문자개혁문제는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과학문화발전전망을 잘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언어학자들은 문자개혁문제를 연구하면서도 당면하게 지금있는 문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과학과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과 글을 연구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과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철자법을 비롯한 우리 말 문법규범과 조선어사전 같은것을 잘 편찬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7(1948)년 1월 조선어문연구회 위원장과 하신 담화에서 일부 사람들이 국가적심의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6자모》라는것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당장 쓰자고 하는 경향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 문자를 한자 고쳐도 반드시 국가적인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고쳐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말과 글을 연구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과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어문연구회에서는 지난날 봉건통치배들과 일제에 의하여 말과 글이 심히 어지러워진 조건에서 우리 말과 글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을 잘하여 인민들이 말과 글을 똑똑히 알고 정확히 쓰도록 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뿐만아니라 통일적인 문법규범부터 잘 만들어야 하며 어문연구회사업에서 자유주의적이고 무규률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개선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

다고 하시였다.

조선어문연구회에서는 어려운 한자말과 외래어를 쉬운 고유어로 다듬고 일본말잔재를 없애며 고유한 우리 말을 살려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민주건설시기 국어학 분야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과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갔다. 특히 어휘정리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국어학을 발전시키는데서 통일적인 문법규범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문법연구를 심화시키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과학적인 문법규범을 만들어 사회에 보급하여야 인민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말과 글을 바로 쓸수 있으며 언어규범화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일적이며 과학적인 문법규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어문법교과서를 잘 편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편찬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선어문연구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문법규범을 작성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주체38(1949)년에 《조선어문법》을 편찬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언어생활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언어규범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우리는 해방후 문자가 인민들의 문화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어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